

원효 화쟁사상 '대립의 화해' 보다 '서로 통하는' 경지

박재현 씨 '불교평론' 기고

최근 나온 계간 <불교평론>은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그간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한 박재현(서울대 규장각 해제위원) 씨의 논문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고'를 실었다.

박 씨는 이 글에서 "화쟁사상은 다름과 대립의 화해라는 의미보다는 모아서 서로(會) 통하게 한다(通)는 의미, 즉 소통에 가깝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화쟁사상을 일종의 화해이론으로 규정했다. 당대 불교 내부의 이론적 혹은 종파적 대립과 다름을 전제로 한 해석인 것이다. 그런데 박 씨는 원효가 문제 삼았던 것은 소통 부재 상황으로 파악한다.

그 근거로 박 씨가 주목하는 것은 원효 당시 불교계의 대립과 갈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료가 없다는 점이다. 신라불교에서 본격적인 종파의 형성이나 유식과 화엄의 대립과 같은 문제는 신라 하대 이른바 5교9산이 성립된 이후에야 등장하는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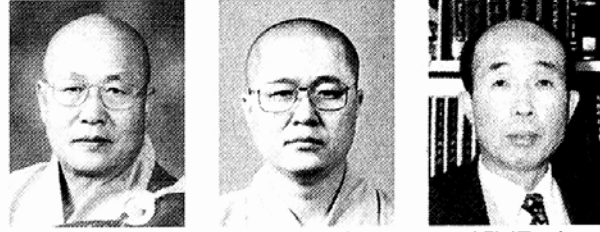
원효가 화쟁론을 제기한 대표적인 저술인 <심문화쟁론>과 <열반종요>, <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론>에서 화(和)와 쟁(諍)이 쓰인 맥락을 살펴봐도 원효의 문제의식은 '대립과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장의 소통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박 씨의 생각이다.

말년의 행적 역시 화쟁사상을 소통이론으로 파악해야만 엘리트 불교의 벽을 허물고 일반 서민들과의 소통로를 확보하려는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권형진 기자



“‘心印 전수’ 보우 스님서 비롯” 종호스님

태고학회, 보우국사 탄신 700주년 학술회의
'원융사상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무공 스님

◇종호 스님

◇권기종 교수

태고종 등 10여 개 종단에서는 종조로, 조계종에서는 증종조로 모시려 있는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4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렸다.

한국불교 태고학회(회장 무공)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태고보우 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 한국뿐 아니라 중국 학자도 참여한 가운데 태고보우 스님의 원융사상이 한국불교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고찰했다.

권기종 교수(동국대)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불교사상과 그 위상'이란 주제발표에서 "원효를 비롯해 의천, 지눌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승들이 원융사상을 주창했지만 태고보우의

원융사상은 한국불교에 있어서 원융사상의 종합적이고 총괄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교수는 "선교의 원융을 주장함에 있어 지눌과 같이 주선종교(主禪從教)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敎)이기 때문에 낮은 것이 아니라 조사의 어록까지도 포함한 언어와 문자의 표현을 낮은 단계로 보고

사상과 수행-교화법 비교연구'를 발표한 김방룡 교수(영산원불교대학)는 태고 보우와 보조 지눌의 사상적 비교를 통해 "보우가 간화선주의자라면 지눌은 선교합일주의자라 할 수 있고

고 있는 특성은 상당부분 보조지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한국선의 정체성, 즉 심인(心印)의 면면 전수라는 역사적 정통성의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는 당연히 태고 보우로부터 비롯된 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가 '근세로 이어진 원융불교의 법통'을, 오영근 동국대 명예교수 '태고 보우선사의 선법과 대승교화법 연구'를, 허

홍식 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공민왕 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갈등'을, 중국 남경대학 홍수평 교수가 '원대 선종 법맥에 대한 소고'를 각각 발표했다.

권형진 기자 jmy@buddhapa.com

지눌 스님은 사상적 회통 보우 스님은 제도적 회통

김방룡 교수

많은 학승 '원융' 주창했지만 보우 스님이 종합·총괄했다

권기종 교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며 "보우가 사교 입선(捨敎入禪)의 태도를 취했다고 하나 차교입선(借敎入禪)의 입장을 취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태고 보우국사와 보조 지눌국사의

제도적 통합을 통한 회통에 치중한 보우에 비해 지눌은 사상적 회통을 꾀했다"고 강조했다.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은 '태고보우 선법의 중심사상과 그 수행법'을 통해 "한국선만이 갖

통해 당시 불교사회의 이면 한 꺼풀을 벗겨낼 계획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폐사 설화를 보면 대부분 빈대 때문에 짙이 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선시대 배불정책과 '빈대'로 비유되는 유생들의 행패라는 비극적 결말이 담겨 있다. 옹이 살고 있던 언뜻 자리에 사찰을 창건하려고 그 옹을 쫓아냈다는 구룡사 설화는 무속과 관련된 토착신앙단체 혹은 이단적인 불교 결사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신성한 공간에 구룡사가 창건되었을 암시한다. (033)732-4800 권형진 기자

원주지역 불교문화 뿌리찾기 세미나

8일 치악산 구룡사... 정병조 교수 등 주제 발표

특정 산과 사찰의 사회·문화적 관련성을 통해 그 지역 불교문화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장이 열린다. 8일 오후 2시 원주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치악산의 불교 문화'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원주 지역 불교문화의 뿌리와 정신을 찾는 자리다. 월정사 주최, 구룡사 주관으로 열

리는 학술 세미나에서는 '구전설화로 본 치악산의 불교사회사'(김의숙 강원대 교수), '불교와 산악신앙'(정병조 동국대 교수), '홍법사, 거둔사, 법전사의 지광국사'(박한설 강원대 명예교수), '나팔여초 복원경의 정치세력 재편과 불교계의 동향'(이인제 연세대 교수) 등의 주제논문이 발표된다.

원주 치악산은 통일신라 때 창건된 거둔사와 법전사, 고려불교의 실질적인 발원지라 할 홍법사가 자리 잡고 있어 고려불교 중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또한 생명의 은인인 나그네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은혜에 보답한 평 이야기 등 숭한 전설과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의숙 교수는 바로 치악산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대표적 설화 4편을



◇지난해 석조보살좌상 보수 공사를 출토된 좌대에 대한 현장자문회의 모습.

월정사 창건 당시 가람배치 밝혀질까?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 석조보살좌상 주변 발굴조사가 11월 중 시작된다. 문화재청은 10월 26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정사가 신청한 석조보살좌상 주변 발굴조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월정사는 11월 중 발굴조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조계종 문화유신발굴조사단이 맡게 될 발굴조사는 석조보살좌상 주변 사방 20m 범위로, 지난해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를 위한 보수 공사 중 불상 좌대와 국보 48호 팔각구층석탑의 기반부가 노출돼 공사가 중단된 지역이다.

석조보살상 주변 이달내 발굴조사

따라서 이번 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발견된 석탑 기반부의 나머지 3면의 흙을 벗겨내 팔각구층석탑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데 있다. 팔각구층석탑은 지금까지 2중 기반 형식으로 알려졌으나 기반부의 발견으로 3단 기반임이 밝혀져 조사결과에 따라 탑의 양식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발견된 토양층에 대한 정밀 조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불에 탄 흔적이 보이는 세 개의 토양층이 발견됐다. 이는 화재로 사찰이 전소된 후 흙으로 다지고 그 위에 다시 사찰을 중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따라서 7세기 중반 창건 이후 한국전쟁 때까지 모두 8차례의 화재로 그 원형을 알 수 없었던 창건 당시 가람배치와 이후 변천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마음 읽히는 책들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승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승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훑을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이문 여시이문은 '듣는 바, 한 치의 아근남도 없이 전하였다'는 정신으로 사리의 빛이 될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